

목 차

간행사

머리말

1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

- 恕 베풀고 용서하라 / 13
- 他 남도 헤아려야 / 15
- 禮 절도 있게 사람답게 / 17
- 監 보고 조심하라 / 19
- 聖 크고 바르게 / 21
- 後 뒤가 아름다워야 / 23
- 人 사람의 품격을 지녀야 / 25
- 土 윗자리의 책임 / 27
- 君 리더가 지킬 일 / 29
- 友 손에 손잡고 / 31
- 訪 덕을 찾는 즐거움 / 33
- 談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 35
- 宅 선비들의 집들이 / 37
- 姓 명문가의 전통 / 39
- 家 피붙이의 집단 / 41
- 鄉 향리의 위선자 / 43
- 治 세상을 경륜하라 / 45

2장 스스로 닦아라

- 己 스스로 귀해야 / 47
- 矢 화살보다는 방패를 / 49
- 器 다양한 그릇이 돼야 / 51
- 大 마음이 넓고 커야 / 53
- 木 질박하게 순수하게 / 55
- 仁 하늘과 땅을 닦으라 / 57
- 安 편하면 죽는다 / 59
- 苦 고통 속의 강인함 / 61
- 畏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 63
- 知 아는 만큼 보인다 / 65
- 千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 67
- 不 부정보다는 긍정을 / 69
- 意 소리에 마음이 더해짐 / 71
- 冊 대쪽에 담긴 보물 / 73

士 학과 덕을 지녀야 / 75
學 인성의 본질을 배워야 / 77
敎 배우고 가르치고 / 79
登 등산이나 공부나 / 81
工 재주를 쌓다 / 83
時 공부는 제때 해야 / 85
格 이치를 터득하라 / 87
校 견주고 닦아야 / 89
改 고치고 바로잡고 / 91
新 날로 달로 새롭게 / 93
下 겸손하고 낮추라 / 95
律 붓으로 기록하다 / 97
名 명불허전해야 / 99
字 관례 때 짓는 이름 / 101
號 자기의 또 다른 이름 / 103

3장 힘보다 지혜

畫 춘화에도 지혜가 / 105
强 어거지와 한계 / 107
卯 토끼가 주는 희망 / 109
假 영원한 소유는 없다 / 111
老 늙은이의 모습 / 113
百 하나에서 백까지 / 115
前 앞 수레가 주는 교훈 / 117
救 친구를 구한 소년 / 119
破 과자 놀이 / 121
讀 글을 읽는 비결 / 123
經 경험과 경륜 / 125
生 삶의 지혜로움 / 127
法 물이 흐르듯 / 129
順 냇물이 흐르듯이 / 131
金 변함이 없어라 / 133
英 영웅과 영재 / 135
所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곳 / 137

4장 밝고 고운 마음

紅 붉은 꽃망울처럼 / 139
花 고운 꽃망울 / 141
明 밝은 마음을 지녀라 / 143
賢 어진 마음을 지녀라 / 145

感 느끼고 감동하고 / 147
動 마음을 움직여라 / 149
歌 노래와 춤도 있어야 / 151
女 아름다운 여인들 / 153
豆 콩각지로 콩을 삶다 / 155
兄 형과 아우처럼 / 157
九 다 함께 사는 비결 / 159
父 정신을 닦아야 / 161
志 선비의 뜻처럼 / 163
死 죽음을 두려워 않다 / 165
價 자기 값은 스스로 정한다 / 167

5장 세상의 이치

鳥 꼬리가 긴 새 / 169
角 뿔과 이빨 / 171
權 저울을 달듯 / 173
中 붙박이는 없다 / 175
運 항상 변한다 / 177
發 땅을 딛고 활을 쏘다 / 179
出 구덩이에 싹이 나다 / 181
萬 진갈을 닦은 글자 / 183
右 손 든 모양 / 185
左 왼손의 모양 / 187
東 세상이 동트다 / 189
西 새가 깃드는 쪽 / 191
命 절대자의 뜻 / 193
骨 뼈 있는 바른 선비 / 195
賀 새해 맞이 전통 / 197
北 두 사람이 등지다 / 199
南 친근감, 그리움, 그리고 희망 / 201
香 벼꽃 향내의 구수함 / 203
農 만사가 농사라 / 205
男 밭에 나가 일하다 / 207
車 물질문명도 함정이 / 209
白 밝고 맑게 / 211

1장 사람과 사람의 관계

恕

용서 서 베풀고 용서하라

용서容恕, 서무식恕無識

恕는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恕자는 같을 여如자에 마음 심心자가 합하여 된 글자입니다. ‘마음이 같다.’가恕의 뜻입니다. 나와 나의 마음이 같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3천 번 이상 바뀌는 것이 마음이라는데, 이것이 합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나의 잘못을 내 스스로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수양이 없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운 가족, 친척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여 겪는 고초가 얼마나 큰지요.

이恕에서 용서容恕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논어論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용容자는 여기서는 ‘답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곧 용서는恕를 용容하는 것입니다.

‘서무식恕無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알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또 배우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배운 자들은 모름지기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공자孔子의 제자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자공子貢이라는 제자가 공자님께 여쭙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두고 마음에 담아 실천할 만한 좌우명座右銘 하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님께서서는 “있고 말고.” 하며 천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恕니라.”

남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함에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을성입니다. 6·25 때 지리산 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빨치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바로 이 공비들이 잡혔지만 목사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용서해주었습니다. 용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입적시켜 자기 자식과 똑같이 사랑한 이야기가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한 시간이나 하루, 또는 한 달쯤 용서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토록 용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공자님께서서는 평생을 두고 이 말씀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언행을 일치시키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성인聖人の 말씀으로 전해오는 것입니다.